

NEWS & REVIEW

뉴스 & 리뷰

2018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본회는 1월 9일(화) 양재 엘타워에서 '2018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코스닥협회 등 혁신단체협의회회 회원사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총 7개 기관이 공동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새해를 맞아 혁신벤처 유관단체 및 기업인이 모여 상생하는 혁신벤처생태계 구축을 다짐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설명회(1, 2차)

1월 10일(수), 24일(수)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 및 비회원사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회는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기관인 법무법인 이후에서 직접 해설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1, 2차 설명회에 통틀어 약 2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1월 30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5층 메이플룸에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임원사 21개사와 본회 임원 등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안) 심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8년도 정기총회 부의 안건 심의가 의결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토의 안건으로는 임원선임(안)이 진행되었다. 2월 22일(목)에는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교육 안내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은 올해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을 단계별(기초, 심화)로 구성하여 교육생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은 이공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계 종사자의 법률적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으며, 방대한 상법 내용 중 벤처캐피탈 업무와 관련된 핵심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11월 개최하는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은 기초단계에서 기획·관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심화 단계에서 조합 실무 시뮬레이션을 학습하면서 좀 더 세분화된다.

2월 개최하는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1차)』을 시작으로 연수원은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교육 일정(안)

구분	교육명	운영형태	일자
2월	성공적 ‘투자’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5일 출석	2.21(수)~27(화)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1차)	1일 출석	2.28(수)
3월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1차 - 블록체인 산업 분석)	1일 출석	3.7(수)
4월	벤처캐피탈 문화콘텐츠 전문가 과정	3일 출석	4.4(수)~6(금)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2차 - M&A 실무)	1일 출석	4.12(목)
5월	제24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4.23(월)~27(금)
		3일 출석	5.2(수)~4(금)
5월	벤처캐피탈 바이오 advanced 과정	3일 출석	5.9(수)~11(금)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2차)	1일 출석	5.30(수)
6월	제25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6.18(월)~22(금)
		3일 출석	6.27(수)~29(금)
7월	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원)생 단기체험 과정	2박 3일	7.4(수)~6(금)
8월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인재 양성 과정	4일 출석	8.21(화)~24(금)
10월	제26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4박 5일	10.15(월)~19(금)
		3일 출석	10.24(수)~26(금)
11월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3차 - 검토중)	1일 출석	11.7(수)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2박 3일	11.14(수)~16(금)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 - 기초	2일 출석	11.15(목)~16(금)
12월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초급과정 - 심화	2박 3일	11.21(수)~23(금)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3차)	1일 출석	12.4(화)
	벤처캐피탈 플래닝 매니저 고급과정	1박 2일	12.6(목)~7(금)

※ 위탁교육 제외

※ 담당자: 정지영 부장 02-2156-2102 jjy67@kvca.or.kr | 이은정 연구원 02-2156-2113 valene@kvca.or.kr | 이신재 연구원 02-2156-2106 lsj@kvca.or.kr

2018년도 1차 M&A 매칭데이 개최

1월 M&A 매칭데이 개최

M&A 거래정보망 등록 매도기업 및 자문기관 간 1:1 상담 및 정보교류를 위해 1월 25일(목) 메디톡스빌딩 B1 비즈니스센터에서 「2018년도 1차 M&A 매칭데이」를 개최하였다.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매수기업의 실질적인 매칭지원을 통해 M&A의 성공률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진행 중인 M&A 매칭데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우수 M&A 자문기관, 대기업, 상장사, 유망 중소기업 등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비공개 1:1 상담을 거쳐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이번 1월 매칭데이에는 우수 M&A 자문기관 3개사와 M&A 거래정보망 등록 매도기업 3개사 등 총 6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물건발굴, 추진전략 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M&A 매칭데이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기관 및 기업은 M&A 거래정보망에 물건등록 및 정회원 가입 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로 문의하면 된다.



벤처투자 사랑방

1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지난 23일 '1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꽃을담다 등 중소·벤처기업 9개사와 아이디벤처스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올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단계에 맞는 투자기관 배정을 위해 '엔젤투자마트*'와 통합신청을 받아 '벤처투자마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본회는 이를 통한 투자기관과의 매칭으로 상담 만족도를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벤처투자마트(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엔젤투자마트: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 중인 엔젤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미팅 프로그램



벤처투자 사랑방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글로벌스타벤처 육성사업

2018년도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공고 안내

벤처캐피탈 및 지방청이 추천한 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

업 '2018년도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회는 운영기관으로 기업 추천 및 신청 접수 등 선정기업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2018년도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 **공고시기**: (1차) 3/5, (2차) 5/29 예정
 - **지원대상**: VC 또는 지방청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VC 추천기업은 최근 3년('15~'17년) 피투자기업
 - **지원내용**: 기술개발자금(최대 2년, 5억 원 이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후속 투자유치, 사업파트너 발굴, 해외로드쇼 등
 - **사업절차**: 추천·접수*→사업공고(R&D 사업계획서 접수)→서면 및 현장평가→최종선정
* 기업 추천은 VC 및 지방청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전 1개월간 진행
 - **문의**: R&D사업팀(02-2156-2134~5, gsv@kvca.or.kr)
- ※ 17년 지원기업 주요성과 : 후속 투자유치(882억 원), M&A(2개사), IPO(1개사), 연계지원(38건, 159.5억 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018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고 안내

해양수산분야 R&D 성과확산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신규 R&D 지원사업 '2018

년도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회는 운영기관으로 투자 적격성 심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주요 내용

- **사업명**: 2018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사업(투자연계 기술개발)
- **공고·접수**: (공고) 1/12~2/13, (접수) 2/1~2/13
- **지원대상**: VC 투자를 유치한 해양수산분야 중소·중견기업*
* 2017.01.01.~2018.02.13. 내 VC 투자를 완료한 기업(투자계약 및 등기 완료)
- **지원내용**: 투자연계 기술개발자금(최대 2년, 10억 원 이내)
- **사업절차**: 사업공고(R&D 사업계획서 접수)→현장조사&투자 적격성* 심의→발표평가→최종선정
* 신청기업 대상 투자유치 적격 여부 확인(투자완료일, 투자유형, 투자금액 등)
- **문의**: R&D사업팀(02-2156-2134~5, rnd@kvca.or.kr)

2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1월 9일(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 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개최한 '2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와 국가 혁신성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된 본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 대연합 회장 등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계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대 간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에 있다고 느꼈으며, 디지털-피지컬-바이오로지컬(Digital-Physical-Biological) 등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들의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1월 10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VIP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신년인사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

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연합 회장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환영사에서 "변화의 시대,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S1 라디오 방송 '박희준의 성공지도' 출연



KBS 한국방송 라디오 1국 '박희준의 성공지도' 프로그램에 벤처투자 전문가로 초대된 본 회 이용성 회장의 인터뷰 녹음분이 1월 14일(일) 방송됐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은 공중파 유일의 ICT 전문 프로그램으로, 이용성 회장은 방송에서 최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벤처캐피탈의 역할, 최근 투자 동향 소개 및 협회의 주요 사업 실적 등에 대해 사회자와 약 30분간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GEM 2018 Annual Meeting(연례 총회) 참석

1월 29일(월) 롯데호텔에서 열린 'GEM 2018 Annual Meeting(연례 총회)' 개막식에 이용성 회장이 VIP로 참석하였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기업가 정신과 국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국제연구 프로젝트로, 국내외 기업가 정신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연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GEM 연례 총회는 70여 회원국 전문가가 모여 연구결과 등을 발표,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 학술모임이다. 올해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행사를 유치하여, 전 세계 130여 명



의 글로벌 전문가 및 국내 기업가 정신 교육자, 연구자, 정책관계자 및 학생 등 1,000여 명이 함께 하였으며 약 20여 분간의 개막식 이후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금기현 총장이 2017년도 현황 및 2018 GEM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테크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바일, 콘텐츠 등 서비스보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투자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약 100억 원 늘어난 800억 원으로 설정했다. 또 약 1,000억 원 규모의 펀딩도 추진한다. 활발한 펀드레이징과 투자 활동을 병행해 벤처투자업계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스타펀드’의 결성총회를 열었다. 지난해 10월 모태펀드 3차 정식 출자사업에서 재기 지원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펀드의 약정총액은 375억 원으로 모태펀드가 80%인 300억 원을 출자한다. 그 외 LP로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20억 원), 애큐온캐피탈(10억 원), 프렌드투자자문(5억 원), 진학사(5억 원)가 참여하며, GP커밋은 35억 원이다. 대표 펀드매니저는 배준학 부사장이 맡으며 김세현 대표와 이석배 전무가 핵심 운용인력에 포함됐다.

메가인베스트먼트

지난달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다른 벤처캐피탈로부터 젠바디의 구조를 90억 원에 인수했다. 젠바디는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브라질의 국영 제약사 바이아파르마(Bahiafarma)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미시간벤처캐피탈

한국모태펀드가 앵커 LP로 참여하는 청년창업펀드 결성 목표액을 최대 3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국벤처투자에 처음 제시한 목표 약정액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청년창업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박기덕 이사과 권동현 상무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조일형 대표는 핵심운용인력 자격으로 이들의 투자 및 사후관리 활동을 돕기로 했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바이오 벤처기업 ‘셀비온’에 투자했다. 내년 초 상장 추진을 앞두고 선제적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SGI퍼스트펍권스타트업펀드’와 새롭게 조성된 ‘삼호-ST 바이오투자조합’이 각각 20억 원, 22억 원을 투자했다. 삼호-ST 바이오투자조합은 셀비온 투자를 위해 순수 민간자금으로 조성된 프로젝트펀드다. 23억 1,000만 원 중 운용사 출자분(5,000만 원)을 제외한 약정총액 대부분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조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송현인베스트먼트

올해 사모투자조합 투자사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주력한다. 인력 확충과 더불어 프로젝트 PEF 결성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성공적으로 투자를 완료한 1,550억 원 규모 ‘키스톤송현밸류크리에이션PEF’ 운용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 뒤를 쫓는 2위 IMM인베스트먼트와 3위 한국투자파트너스는 2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벤처펀드만 1조 원 넘게 운용하며 벤처투자 분야의 최강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일본의 온라인 교육업체 ‘네오에듀’에 1억 원을 투자했다. 일본 현지 기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자는 박희덕 세마트랜스링크 대표 주도로 성사됐다. 네오에듀는 IB 업계 경영진과 야후 출신 개발자 등 한국인들이 합심해 설립한 일본의 교육 스타트업이다.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기업공개(IPO)를 발표한 삼아 대형사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연내 코스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투자사는 업종 특성상 기업실사 등의 과정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연내 상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일신창업투자

‘일신 뉴코리안웨이브 2호 투자조합’ 결성했다. 이번 투자조합은 방송드라마에 집중투자하는 151억 원 규모의 콘텐츠펀드다. 일신창업투자는 지난해 7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사업 문화계정에서 드라마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번 펀드는 한국 드라마산업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신인류 확산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향후 6년의 존속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팔로우온 부문의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로 선정되어 첫 번째 단독 벤처펀드를 조성하게 됐다. 출자금은 120억 원으로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최소 8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 된다. 대표펀드매니저는 2016년 합류한 김영도 이사가 맡기로 했다. 신관호 전무와 엄장수 이사는도 핵심운용인력으로 합류하게 된다.

에스비이인베스트먼트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에스비이인베스트먼트가 연내 미국 현지에 펀드를 조성한다. 보스톤에 소재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켄싱턴캐피탈벤처스(Kensington Capital Ventures, 이하 KCV)’와 공동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060억 원)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약정총액은 약 1억 달러로 규모가 최대 1억 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모태펀드 외에 공동 운용사(Co-GP)인 KCV가 2,500만 달러 이상을 출자할 예정이다. 상반기 1차 클로징을 마칠 계획이며 멀티클로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최근 결성한 3,207억 원 규모 '에이티넘성장투자 조합 2018'을 통해 200억 원에 가까운 관리보수를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3,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벤처조합 결성을 통해 더욱 수익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다만 펀드 규모가 큰 만큼 일반적인 관리보수 지급 비율인 2.5%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동안 운용해온 1,000억 원~2,000억 원대 벤처조합과 비교해 매년 받는 관리보수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스인베스터

'이에스4호청년창업투자조합'의 결성총회를 개최했다. 신규조합의 약정총액은 100억 원이다. 조합의 유한책임투자자는 모태펀드(60억 원), 이에스크리에이터즈(20억 원), 코스닥상장사(1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스인베스터는 10억 원을 출자했다. 대표펀드매니저는 윤종연 대표가 맡았다.

이앤인베스트먼트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 선정을 조만간 마친 뒤 증시 입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앤인베스트먼트는 ㈜이지바이오의 계열사로 2007년 설립된 벤처캐피탈이다. 최근 주요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이르면 1분기 중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상장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라이트벤처스

'인라이트2호CD펀드' 운용 전략을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 및 잠재 투자 대상 기업들에 소개했다. 인라이트2호CD펀드는 삼성전자와 대구광역시의 공동 출자로 지난 2014년 조성된 창업 지원 펀드다. 대표펀드매니저는 김용민 대표가 맡는다. 여기에 박문수 대표와 유동기·손민호 상무도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한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약정총액 810억 원 규모의 KDB산업은행 자펀드 결성을 완료한다. 펀드 결성 작업에 나선 지역 6개월 만이다. 이번 펀드 결성을 통해 컴퍼니케이의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10억 원 규모의 펀드는 컴퍼니케이 설립 후 가장 큰 규모다. 애초 컴퍼니케이는 해당 펀드를 약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할 계획이었지만 결성 과정에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진행된 각종 벤처펀드 출자사업에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영향이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 펀드를 670억 원 규모로 결성했다. 연기금·공제회 출자사업에서 3차례 연속으로 선정되며 당초 계획보다 초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운용자산도 3,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대형사로 체급을 한 단계 올리게 됐다. 결성총액은 670억 원이며 앵커 LP인 모태펀드가 175억 원을 출자한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두 번째 블라인드 펀드 자금 모집을 마무리한다. 투자약정 작업은 대부분 마쳤으나 각 기관의 예산 집행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종 펀드 클로징 마감 시점은 3월로 예상된다. 약정금액은 최소 4,000억 원에서 최대 4,500억 원이다.

프리미어파트너스

PE 본부 김성은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PE 본부 이동훈 이사와 김병찬 부장은 각각 상무와 이사로 승진했다. VC 본부에서는 조준연 이사가 상무로, 바이오본부는 심수민 부장이 이사로 한 직급 올라섰다. 김병찬, 심수민 부장이 이사로 승진하면서 프리미어파트너스의 이사급 이상 임원은 9명으로 늘었다. 현재 프리미어파트너스의 조직은 PE 본부, VC 본부, 바이오 본부, 컴플라이언스 본부로 구성돼 있다.

쓸레어파트너스

설립 이후 1호 펀드를 결성했다. 주요 배급사의 모든 영화에 투자하는 영화 인덱스펀드다. 조합 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교보생명, 삼성증권, IBK기업은행, SK증권, 애뮤온저축은행 등이 주요 LP이다. 배급사인 CJ E&M, NEW, 쇼박스, 워너브라더스코리아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다.

신규가입

회사명	대표	주소	
인라이트벤처스(유)	김용민, 박문수	본사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동
		서울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9길5, 12층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복, 곽동걸	곽대환, 곽동걸
포스코기술투자	정찬형	심동욱



I S S U E 이 슈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8 참관기



김경엽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이사

지난 1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참관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는 150여 개국, 4,0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AI, 자율주행, IoT, VR, 드론 등 소위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총망라했다. 워낙 분야가 넓어 유명 제품 및 부스들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바가 많아 이번 참관기는 참관단 및 필자가 느꼈던 내용을 몇 가지 주요 주제로 묶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Google vs Amazon

CES에서는 AI와 접목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날 수 있었다. AI 스피커는 물론이고 냉장고, TV 등 전원이 연결된 모든 기기가 AI와의 접목을 시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글이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드웨어만으로 혁신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AI와 융합한 혁신은 가능하다. AI를 활용한 기기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했던 발표가 피부로 느껴졌다. 기기 혁신의 주도권이 이전 성능이 아닌 활용도(AI)로 넘어가는 시점이 온 것이다. AI를 활용한 기기 혁신은 곧 AI 플랫폼으로 연결된다.

CES에서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를 꼽자면 어느 대형 가전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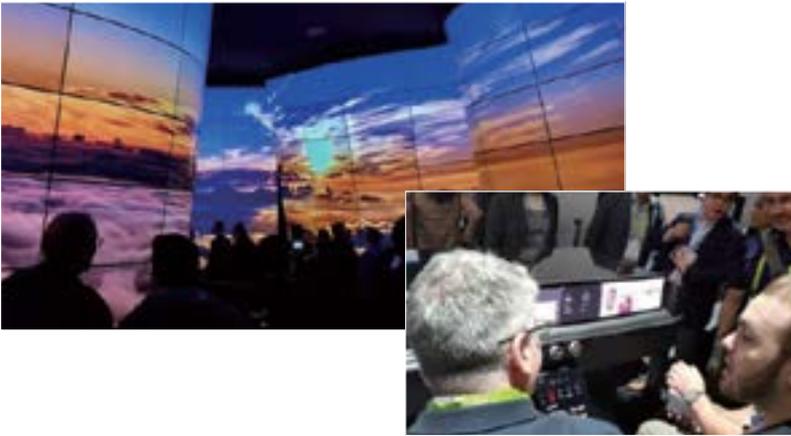
의 부스를 가더라도 공통되게 들리는 단어인데, 바로 기기에 명령하기 위해 AI를 부르는 “Alexa” 혹은 “Hey, Google”이었다. 방문한 부스들은 분명히 LG, 소니 등 가전회사인데 몇 군데를 지나다 보면 Amazon과 Google의 기기들을 관람한 느낌이었다.

특히, 구글은 스마트폰과의 플랫폼 연동성을 무기로 적용처를 확대해나가며 Amazon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다. 양대 AI 플랫폼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자신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디스플레이 적용처 증가

혹자는 CES가 Car Electronics Show가 아니냐고 농담할 정도로





대부분 부스에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었다. 가전업체들은 자동차 내부를 다음 격전지로 삼고 있는 듯 했다. 특히 운전석부터 센터페시아를 지나 조수석까지 모두 디스플레이로 꾸민 제품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파나소닉의 경우 측면 유리까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며 디스플레이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상상력을 자극하였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로 디스플레이의 수요를 견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그 외에도 기사로도 많이 다뤄져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지만, 삼성전자의 'The Wall', LG의 롤러블 OLED 또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적용처 확대를 가늠할 수 있었다.

드론 및 로봇

미디어에 많이 소개된 소니의 '아이보'를 비롯해 다양한 로봇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기 충분했다. South Hall에서는 드론뿐만 아니라 수중 로봇, 체스나 Word 게임을 같이 즐기는 로봇, 사람과 탁구를 해주는 로봇, 심지어 빨래를 개어주는 로봇도 구경할 수 있었다. 일본 기업에서 선보인 옷장 형태의 기기 런드رويد는 투여된 다양한 세탁물을 자동 분류하고 개어준다고 하였으나 시연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동작 과정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및 모자이크까지 해놓아 실질적인 발전 단계를 가늠해보기 어려웠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South Hall에 전시된 드론/로봇/VR 업체 및 사물 인식 등 AI 업체들에 중국 회사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로봇관의 중국 기업은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는 비중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 회사가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 회사들이 가전 부문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스케일과 기술력과 대조되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유레카관

컨벤션센터 이후 샌즈 엑스포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900여 개 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었다. 미래 대기업이 될만한 스타트업들이 아주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선보였다.

CES는 주제가 다양하고 참가 업체가 많아 전시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쉬움이 남았다. 프랑스/네덜란드/중국/독일 등이 자국 회사를 알리기 위해 눈에 띄는 장치를 많이 고안해 온 것에 비해, 국내 부스는 선보인 기술력에 비해 시선을 끌 만한 장치 지원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만 해도 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출전하였고, 부스와 그 주변에 관람객을 끌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펼쳐져 있었다.



중국의 부상

기사를 찾아보니 참여 업체의 1/3이 중국 회사라고 한다. CES의 C가 China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중국은 대기업뿐만 아닌 수많은 중견, 중소, 벤처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눈에 보인 반면, 한국은 대기업의 부스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압도적이었지만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기조연설자

로 중국 기업인이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조연설 '제로'다. 바이두는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중국 기업의 기술 또한 AI, IoT,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족이지만 전시 2일 차 컨벤션센터 Central Hall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디스플레이, 각종 AI 제품, 로봇들까지 모두 동작을 멈추고 전시장은 암흑이 되었다. LG의 '클로이'는 와이파이 문제로 컨퍼런스에서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화려한 기술에 빠져있던 관람객들도 복잡한 생각을 가졌을 법하다. 정전은 2시간 후 복구되었고 LG도 원인을 찾았다. '스마트시티'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서 전기와 통신 등 인프라의 중요성 또한 작은 사고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간 기사로만 접하던 CES를 참관하니 전반적인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어 남다른 경험이 되었다. 참관기 또한 일반 뉴스로도 접할 수 있는 업체나 기술, 제품 소개보다는 현장감을 중심으로 다른 심사역분들과 소감을 나누고 싶었으나 필력 부족으로 완전히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최근 다양한 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덕분에 유명 전시회들도 참관객 유치가 고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글과 화면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험에 대해 확신이 생겼기에 모든 분께 직접 참관을 추천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CES 참관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 글로벌 VC 시장 Top5 결산

2017년은 중국이 글로벌 VC 시장에서 차지한 존재감을 다시 확인했던 한 해였다. 중국은 미국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전 세계 VC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VC 투자를 규모 순으로 나열했을 때 상위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투자 회수 부문에서는 미국이 금액적으로 중국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상위 5개

사의 투자금이 17년 회수됐으며, 이들은 최근 IPO한 스냅(Snap)을 포함하여 모두 미국 소재 기업이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비전펀드를 제외하면, 작년 가장 큰 두 펀드인 NEA와 IVP가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약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조달해 결성 완료에 성공했다. 이상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며 투자, 회수, 펀드 각 부문별로 글로벌 VC 업계를 놀라게 한 상위 5개 케이스를 선정해 정리했다.

투자

1위 디디추싱(Didi Chuxing), \$55억



중국판 카카오택시 모바일 앱인 디디추싱은 17년 4월, 기업 가치로 600억 달러의 평가를 받고 약 5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디디추싱은 VC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의 기록을 2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한편 디디추싱이 이번에 조달한 투자금 상당 부분은 소프트뱅크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 메이투안-디엔핑 (Meituan-Dianping), \$40억



음식 배달,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이투안-디엔핑은 17년 10월, 약 300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시리즈 B 투자로 40억 달러를 조달했다. 2015년 메이투안과 디엔핑이 합병한 이 중국 기업에 투자한 곳으로는 텐센트, IDG캐피탈, 세콰이어 등이 있다.

3위 위워크(WeWork), \$30억

17년 8월, 공유 오피스기업 위워크는 210억 달러로 가치를 평가받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다.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의 모기업에 우선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및 한국에 있는 지사들을 대상으로 14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 뉴욕에서 공동 근무 공간 제공 아이디어로 창업한 이 공룡 기업은 이번 투자를 받은 후, 코딩 교육업체 플랫아이언스쿨 및 인공지능평 기술을 가진 웨이브가든 등 기업을 인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위 투우티아오(Toutiao), \$20억



뉴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업체인 투우티아오는 17년 8월 약 2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2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전 4월에도 우티아오는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이 중국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로는 세콰이어와 DST글로벌 설립자이자 러시아 억만장자로 알려진 유리 밀너 등이 있다.

5위 리프트(Lyft), \$15억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프트는 자동차 승차 공유 서비스 앱을 선보인 기업으로 우버와 함께 차량 공유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프트는 17년 12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투자회사 캐피탈6로부터 약 115억 달러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15억 달러가량 투자받았다. 리프트는 현재 미국에서 VC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고 있다.

회 수

1위 앱다이나믹스(AppDynamics), \$37억 M&A



17년 1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공룡인 시스코가 소프트웨어 성능 관리 업체인 앱다이나믹스를 3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앱다이나믹스는 17년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첫 미국 테크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상장 바로 전날 시스코와의 M&A가 발표되며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2위 스냅(Snap), \$34억 IPO



모바일 메신저 앱 스냅챗을 운영하는 모회사 스냅은 17년 뉴욕 증시 시장에 성공했다. 비록 IPO 이후 스냅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상장 당시 주당 17달러로 2억 주가량을 팔아 총 34억 달러를 조달하여 성공적인 상장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3위 츠이(Chewy), \$33.5억 M&A



2011년에 설립한 츠이는 반려동물 쇼핑몰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떠오르는 유망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17년 5월 그린스프링어스 시에이츠 및 볼리션캐피탈 등의 VC로부터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금을 조달했고, 이어 33억 5천만 달러로 펫마트에 인수되었다.

4위 IFM 테라퓨틱스(IFM Therapeutics), \$23억 M&A



암,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기업 IFM은 23억 달러에 브리스틀마이어스스큘에 인수됐다. IFM은 2016년 아틀라스벤처를 포함한 VC 투자자들로부터 5천만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고 시리즈 A 투자로 약 2천 7백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5위 바이(Bai), \$17억 M&A



세븐업, 캐나다드라이, 슈웍스 등 유명 음료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닥터페퍼 스내플그룹이 17년 1월 17억 달러에 바이를 인수함으로써 자사의 제품 라인업을 보강했다. 향산화 음료를 선보인 바이는 스트랜드에쿼티파트너스, CAVU벤처파트너스 등으로 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

펀 드

1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980억

17년 11월 소프트뱅크가 980억 달러 규모로 결성 완료한 비전펀드는 펀드 규모 기준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17년 5월에 930억 달러로 1차 모금 완료됐던 이 펀드는 작년 가을까지 총 980억 달러로 성장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비전펀드의 전체 규모는 약 1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위 NEA 16, \$33억

NEA는 이번 NEA 16 펀드를 33억 달러로 결성 완료함으로써, 2003년 NEA 11 펀드가 첫 10억 달러 규모로 결성 완료된 이래 7개 펀드 연속 최소 10억 달러 이상 결성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3위 IVP XVI, \$15억

드롭박스, 어니스트컴퍼니, 슬랙 등을 투자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는 IVP는 17년 9월 자사의 16번째 펀드를 총 15억 달러로 결성 완료하며 펀드 규모 순위 3위에 올랐다.

4위 로켓인터넷, \$10억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로켓인터넷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17년 1월 결성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등 분야의 투자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5위 클라러스벤처스IV, \$9억 1천만

클라러스벤처스는 생활과학 분야 전문 VC로, 당초 7천 5백만 달러였던 자사의 4번째 펀드 결성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 펀드를 통해 후기단계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2018년 개정판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요약

| 편집자주 |

본회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될 투자계약서에 관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당시 제·개정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본회는 1월 중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해설서를 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과 시장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의 완화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7. 4. 5. 발표)에서는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용자 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 7.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책금융에 있어 2017년 내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며, 향후 정책금융에 있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언론을 통해 내년 상반기 정책금융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연대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은 민법상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모험투자에 있어 최소한의 리스크 분산, 이해관계인의 모럴해저드 방지 취지에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연대보증 축소 요구는 벤처투자 업계에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벤처투자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정부

정책과 취지를 모은 연대보증 전면 철폐가 창업 및 벤처 생태계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해관계인의 책임 규정이 '과실과 무관한 연대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 전면적인 과실책임' 형태로 전환되어 활용되기를 권장하는 취지로 본 해설서의 해당 부분을 보완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보완

(1) 특수관계인 범위 인용 법률의 변경

2016. 7. 28.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2016. 12. 5.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인용하는 것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투자계약서에서의 특수관계인 인용 법률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2) 지연손해금 이율의 조정

투자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법정이율인 연 100분의 20, 즉 연 20%로 통용되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연 100분의 20에서 연 100분의 15로 조정”이라는 개정이유에 근거하여 연 100분의 15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서상 지연손해금 이율도 연 15%로 조정하여 반영하였다.

(3)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범위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의무 투자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요건으로 “신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중소벤처기업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9조는 2016. 9. 2. 개정으로 라목에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를 신설 추가하여 투자 의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해설서에 교환사채 투자계약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3. 연 복리를 연리로 조정

그동안 벤처투자 실무에서는 연 복리가 많이 통용되었으나, 투자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묻는 사안에 복리가 연리와 비교하여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업계 외부 시각에 투자 대상기업과 이해관계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실제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가 연 복리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연 단리로 청구 수정을 권고하는 예

도 상당하여, 벤처투자 업계의 이미지와 실무상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단)리로 조정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4. 투자금 회수 방안의 현실화

(1) 주식매수청구권 및 위약벌 발생 사유에 대한 조정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사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유리할 수 있으나, 그만큼 투자자의 관리업무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발생 사유가 중요치 않은 사유에 희석될 수도 있으며, 성실 경영에 이은 부득이한 사업 실패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의 실무담당자 및 투자 대상기업, 이해관계인이 모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약 위반 사유들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매매대금 및 위약벌 대금의 발생 사유별 차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청구하게 되는 주식매매대금 및 위약벌 청구 시 청구하게 되는 위약벌 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를 가급적 발생사유별로 차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를 반영하였다.

주식양도제한의 가부 ; 이사회 승인사항 관련하여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Q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할 경우의 쟁점¹⁾

주식양도 제한은, ①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② 주주 간의 양도제한 약정,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내용 포함

1. 의의

- 상법 제335조 제1항 : 양도 자유 원칙,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제한 가능. (단, 상대적 효력)
 -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²⁾
- 이사회 승인 거부의 상대적 효력으로 투자자의 투자자산 회수 기회 부여

2. 양도제한의 요건

(가) 정관의 규정

- 제335조 제1항 단서
- 양도제한을 하는 정관으로의 변경에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는 아직 미도입

(나) 제한의 대상

- 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은 주권의 소지로 권리가 증명되므로 속성상 불가능
- 상장주식은 상장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양도제한 불가

(다) 양도제한의 공시

- 주식양도의 제한은 등기하여야 함(제317조 3호의 2)³⁾.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 불가(제37조 제1항)
-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응하더라도 양수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항 불가

3. 제한의 방법(이사의 승인)

- 이사회 승인 외의 방식 불가 : 예) 특정 주주의 승인, 대표이사의 승인 등
- 이사회 승인과 관련된 매수인지정청구, 주식매수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
- 양도제한은 모든 주식에 평등하게 적용 : 특정 주주, 특정 수량의 주식 양도제한 규정은 무효
- 주주 일반의 보편성이 지켜지는 양도제한은 가능 : 예) 외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요청,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 요청 가능, 특정 대주주, 특정 경쟁업체에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 요청 불가능
- 특정 주주, 특정 부류의 주주에게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⁴⁾.

1)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만의 주식양도를 제한할 경우의 문제점 등

2) 참고 :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내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종략

3의2.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실무상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종업원소유주식, 외국 합작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의 양도에 이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하지만, 특정 종류의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 요청은 유효⁵⁾

4.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2항)
-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유효, 지정 또는 매수청구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⁶⁾

5. 승인청구권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및 승인거절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

-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가능(제335조의7)
- 양도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①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 ② 주식매수청구, ③ 거절에도 불구하고 양도(이후는 양수인의 승인청구 문제) 중 선택
-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① 양도 상대방 지정청구, ② 주식매수청구, ③ 재양도
-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 기간 내에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승인거절로 인한 지정청구권 및 매수청구권 소멸하지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재차 승인청구를 하고 거절 시에는 지정청구 또는 매수청구 가능(多) : 반대) 청구 기간이 경과하면 재차 양도승인청구 불가 견해
-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식매수청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결과가 되나 이 경우는 배당가능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6. 이사회 승인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사례

- 강학상 특정 주주 또는 특정 부류의 주주에 국한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주식 평등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이나, 『특정 종류의 주식(예, 보통주 혹은 우선주)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대법원 상업등기실무⁷⁾에 의하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양도제한의 내용이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제한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주



주 또는 특정 수량의 주식양도에 관해서만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외국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또는 기존의 주주(또는 종업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수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한편 등기 조항이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종류 주 투자자가 주식(종류주식 또는 전환된 보통주식)을 양도할 경우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음
- 여기서 단서 규정이 종류 주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 회사와 주주 간의 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상법이 허용하는 주식의 양도제한은 주식양도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다는 내용은 이와 다른 제한방법이므로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규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음
- 위 예시 제한 조항 단서와 같은 취지의 제한 규정은 해석상 그 효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투자 전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5) 6. 법률적쟁점 참조

6)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7)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III), 233면 이하 참조



MARKET TREND

시장 동향

12월 신규결성조합 주요 현황

에이티넘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되어 3,207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투자자로는 대전시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비롯해 10대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지금까지 결성한 펀드 중 최대 규모이다.

스 틱

스틱인베스트먼트가 1,083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펀드를 결성했다. 한국모태펀드가 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그 외 KIF 및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출자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17년도에 결성된 전체 운용사들의 펀드 규모를 보면 대형화 특징이 두드러진다.

케이큐브

케이큐브벤처스가 17년도 두 번째 펀드를 결성했다. 펀드 규모는 760억 원으로 주요 투자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핵심 기술력을 지닌 기업이다. 금번 펀드를 비롯해 케이큐브벤처스는 ICT 및 SW 기술 주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 2017년 12월에 5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창업 초기 펀드 15개, 세컨더리 펀드 2개, 해외 진출 펀드 2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의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18'가 3,207억 원으로 가장 컸고,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스틱 4차 산업혁명 펀드', 케이큐브벤처스의 'KIF-카카오 우리은행 기술금융투자펀드'가 각각 1,083억 원, 76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2017KIF-한국투자지능정보투자조합	5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에쓰비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에쓰비4차산업혁명투자조합	1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케이런벤처스	창투자조합	케이런글로벌바이오프로젝트펀드1호	64	일반	바이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티에스우리-충남11호턴어라운드투자조합	630	일반	중소/벤처일반
솔레이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솔레이영상투자조합2호	39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솔레이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솔레이영상투자조합4호	2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제이엑스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제이엑스2호투자조합	12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솔레이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솔레이영상투자조합3호	25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센트럴스포츠투투자조합	170	일반	중소/벤처일반
비오케이창업투자	창투자조합	비오케이창업초기2호투자펀드	21	일반	중소/벤처일반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창투자조합	울산-LH청년창업투자조합	120	지방	중소/벤처일반
씨케이디창업투자	창투자조합	CKD바이오-헬스케어Corporate-Fund1호	150	일반	중소/벤처일반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삼호-ST바이오투자조합	23	일반	중소/벤처일반
데브시스템즈벤처스	창투자조합	데브-넥스트청년창업투자조합3호	15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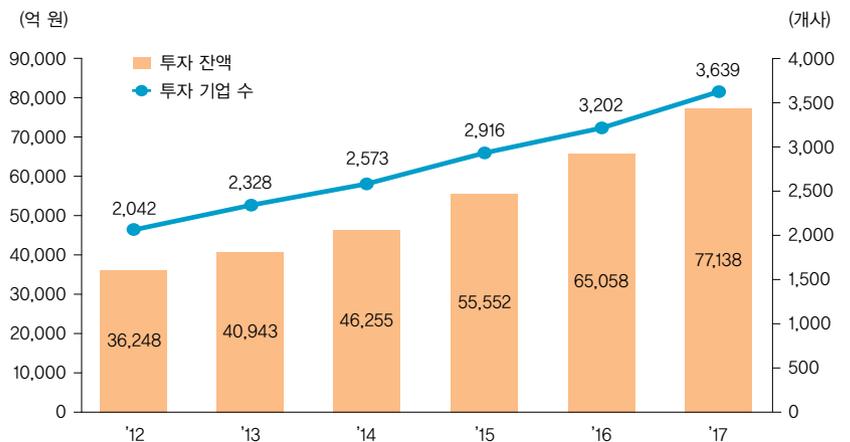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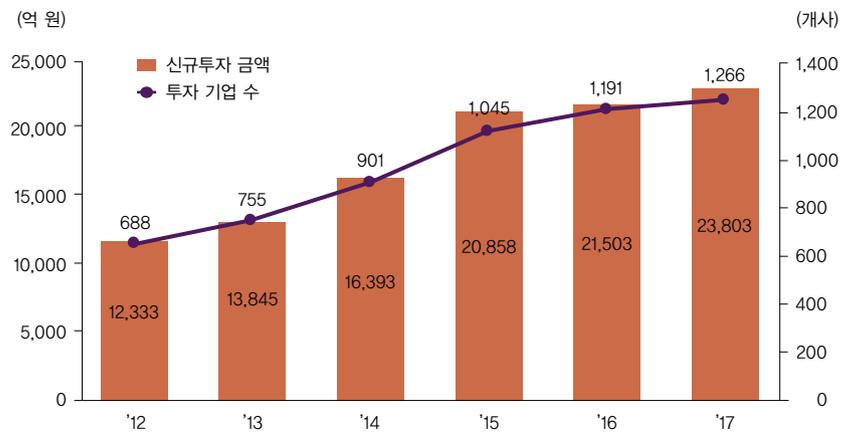
12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창투조합	신한-수인베스트먼트청년창업투자조합	27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대성창업투자	창투조합	대성글로벌위너청년창업투자조합	15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창투조합	L&S-SDC청년창업투자조합	10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현대기술투자	창투조합	현대청년펀드2호	60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레오9호효성청년창업펀드	15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Translink글로벌파트너청년창업투자조합	35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2017KIF-스마일게이트싱글래리티투자조합	370	일반	중소/벤처일반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DSC드림X청년창업펀드	43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창투조합	KB청년창업3.0투자조합	30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스톤브릿지벤처스	창투조합	스톤브릿지영프론티어투자조합	34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케이티비네트웍	창투조합	KTBN13호벤처투자조합	510	일반	일반기타
이에스인베스터	창투조합	이에스4호청년창업투자조합	101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패스파인더에이치	창투조합	패스파인더리본투자조합	200	일반	일반기타
썬레어파트너스	KVF	썬레어영상투자조합1호	7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KVF	SGI세컨더리투자조합제2호	84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마이더스동아인베스트먼트	KVF	신한-마이더스동아세컨더리투자조합	100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대덕벤처파트너스	KVF	충청권글로벌기술투자조합	150	해외진출	중소/벤처일반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KVF	스마일게이트녹색성장1호펀드	420	일반	중소/벤처일반
가이아벤처파트너스	KVF	가이아방송콘텐츠투자조합1호	103	문화	문화기타
케이큐브벤처스	KVF	KIF-카카오우리은행기술금융투자펀드	760	일반	중소/벤처일반
엘비인베스트먼트	KVF	LB기술금융펀드1호	540	해외진출	중소/벤처일반
대덕벤처파트너스	KVF	대전4차산업혁명투자조합	130	지방	중소/벤처일반
네오플렉스	KVF	신한-네오플렉스에너지신산업투자조합	6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스틱인베스트먼트	KVF	스틱4차산업혁명펀드	1,083	일반	중소/벤처일반
가이아벤처파트너스	KVF	가이아재기지원투자조합1호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메가인베스트먼트	KVF	2017메가RS투자조합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미래에셋벤처투자	KVF	미래에셋청년창업투자조합2호	25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마그나인베스트먼트	KVF	2017마그나인스타펀드	375	일반	중소/벤처일반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KVF	에이티넘성장투자조합2018	3,207	일반	중소/벤처일반
코오롱인베스트먼트	KVF	코오롱20174차산업혁명투자조합	5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케이앤투자파트너스	KVF	케이앤JUMP-UP1호투자조합	375	일반	중소/벤처일반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KVF	LSK헬스케어1호펀드	200	일반	바이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KVF	케이클라비스.비하이리챌린지투자조합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인터베스트	KVF	인터베스트4차산업혁명투자조합	6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KVF	HB청년창업투자조합	750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포스코기술투자	KVF	포스코4차산업혁명펀드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KVF	신한-코그니티브청년창업투자조합	305	창업초기	중소/벤처일반

신규투자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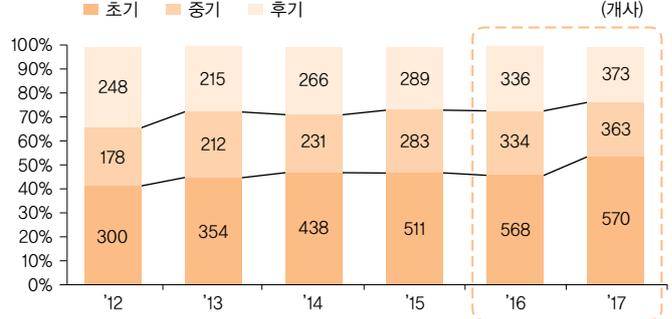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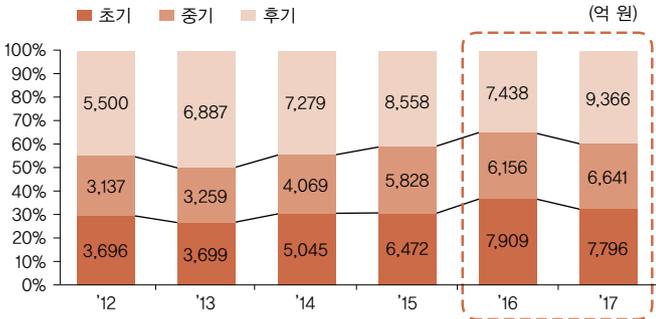
- 금년 12월까지 신규투자는 23,803억 원으로 전년 동기(21,503억 원)보다 10.7%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1,266개사로 전년 동기(1,191개사)보다 6.3% 증가하였다.
- 12월에는 다원메딕스가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네오아티잔, 알비더블유, 해성굿쓰리, 레이크머티리얼즈, 신화어드밴스, 직방, 보령바이젠셀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2월까지 3,639개 업체에 7조 7,138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12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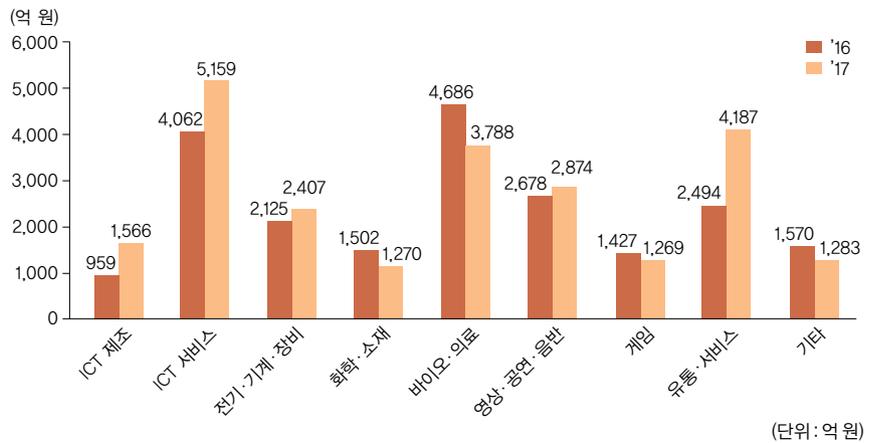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12월까지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39.3%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2.7%, 중기기업 28.0%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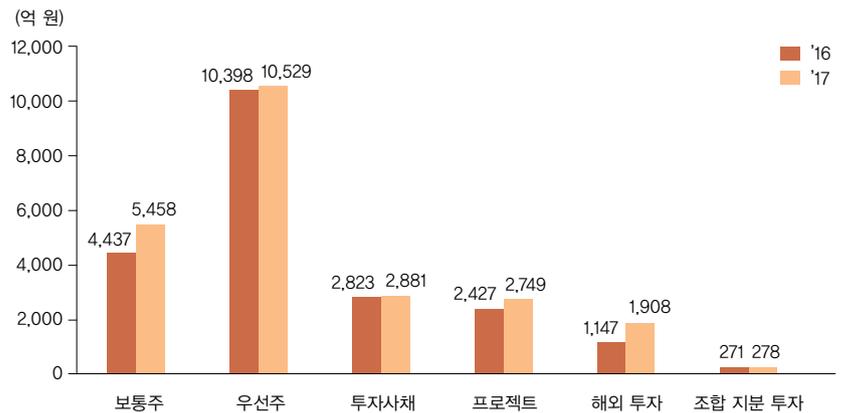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5,159억 원, 유통/서비스 4,187억 원, 바이오/의료 3,788억 원, 영상/공연/음반 2,874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69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898억 원으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CT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1,566
ICT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5,159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2,407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270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3,788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2,874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1,269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4,187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1,283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10,529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4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보통주가 5,458억 원으로 22.9%였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61억 원 증가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20.6%) 대비 2.3%p 증가한 22.9%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1.3%로 전년 동기(11.5%) 대비 0.2%p 소폭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비중은 8.0%로 전년 동기(5.4%) 대비 2.6%p 증가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5,458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10,529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2,881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2,749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1,908
조합지분투자	0	0	0	152	271	278
합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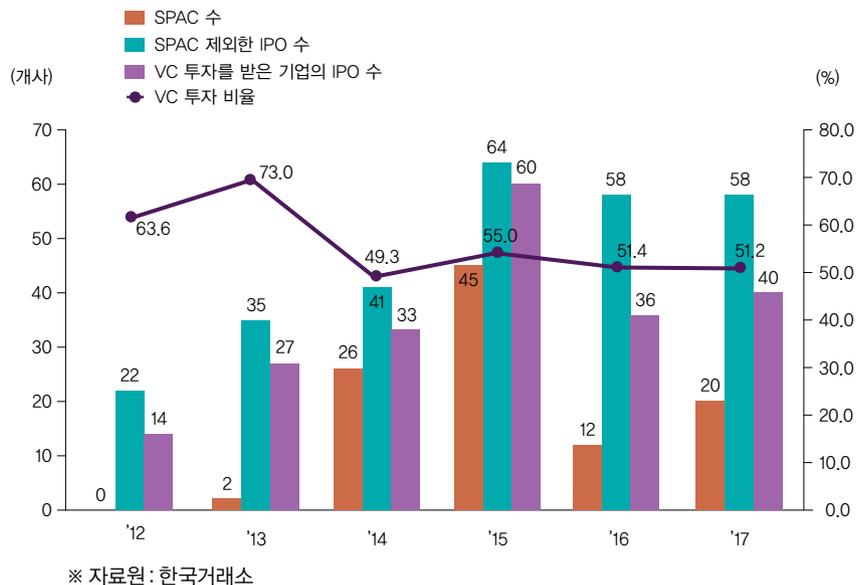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53.5%)을 비롯한 수도권(75.9%)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8.2%, 5대 광역시 7.9%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64개사 1,908억 원(8.0%)이 투자되었다.

12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12월까지 회수원금은 9,251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 비중이 52.8%로 가장 높았고, IPO가 24.9%, 프로젝트가 14.6% 순이었다.
- 특히, 12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 비중이 높았는데, 121건의 거래를 통해 585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481억 원(8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12월에는 코스닥시장에 9개사(대원, 체리부로, 에스트래픽, 메카로, 씨티케이코스메틱스, 동부제5호기업인수목적, 디바이스이엔지, 한국제6호기업인수목적, 시스웍)가 상장되었으며, 이 중 에스트래픽, 메카로, 씨티케이코스메틱스, 디바이스이엔지, 한국제6호기업인수목적 5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307	
M&A	72	22	163	150	329	324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348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3,724	3,853
	채권	1,165	1,025	1,311	1,614	1,045	1,030
기타	188	736	217	342	476	389	
합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9,251	

(VC 포커스) 해외 2017년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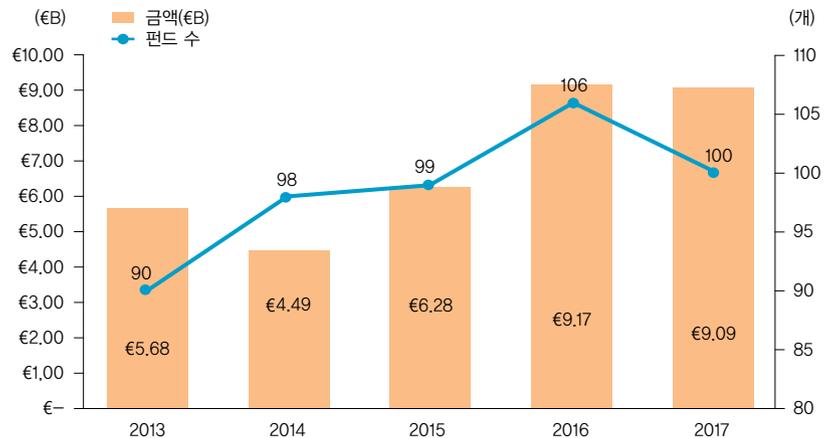
투자재원

※ 자료 :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 (중국) 2017년 4분기까지 37개의 펀드가 신규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56억 5천만 달러 (6조 370억 원)로 전년 동기(63억 달러) 대비 10.3% 감소함



- (유럽) 2017년 4분기까지 100개의 펀드가 신규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90억 9천만 유로(11조 6,533억 원)로 전년 동기(91억 7천만 유로) 대비 0.9% 감소함



- (비교) 2017년 4분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44,430억 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2.6배 수준, 중국은 1.4배 수준임

펀드결성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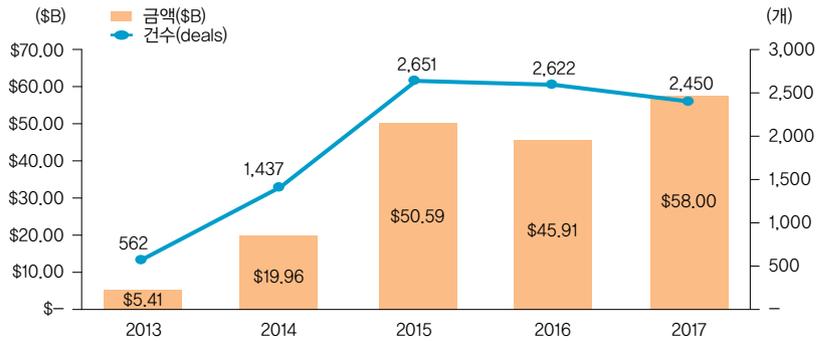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34,940	76,505	75,116	67,316	60,370
유럽	72,817	57,561	80,509	117,558	116,533
한국	16,649	26,195	26,346	34,625	44,430

*환율은 2017년 12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068.50원, 1유로=1,281.99원)

(VC 포커스) 해외 2017년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신규투자

- (중국) 2017년 4분기까지 총 2,450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580억 달러 (61조 9,730억 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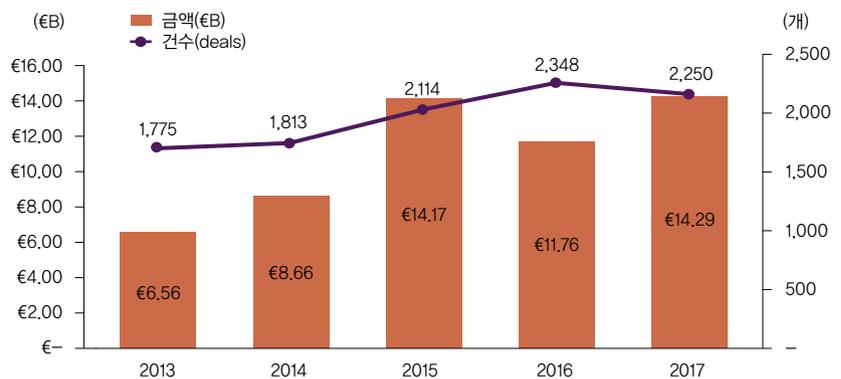
- '2017년 4분기 중국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Didi Chuxing Technology, E-소셜커머스 업체인 China Internet Plus Holding 등이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4/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7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1	Didi Chuxing Technology	4,000
2	China Internet Plus Holding	4,000
3	Beijing Jinshanyun Network Technology	520
4	Megvii Technology	460
5	Jiufu Jinke Holdings Group	400

- (유럽) 2017년 4분기까지 총 2,250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142억 9천만 유로(18조 3,196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4분기 유럽에서는 영국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업자인 Truphone, 영국의 P2P 송금업체인 TransferWise가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MARKET TREND

2017년 4/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단위: 백만 유로)

순위	2017년 4/4분기	
	기업명	금액
1	Truphone	289
2	TransferWise	240
3	ACORN OakNorth Holdings	174
4	Orchard Therapeutics	92
5	Monzo Bank	67

- (비교) 2017년 4분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23,803억 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6.0배, 유럽은 7.7배 수준을 기록함
- '13년~17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¹⁾은 80.9%로 유럽의 21.5%, 한국의 14.5%와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규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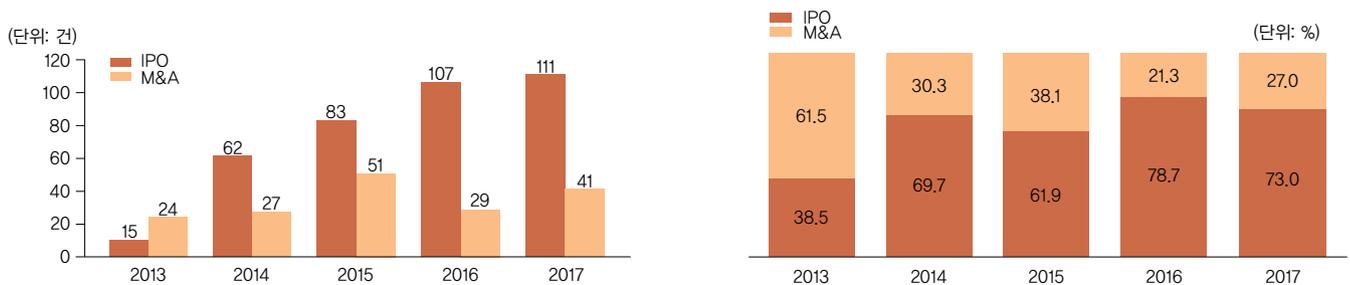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57,806	213,273	540,554	490,548	619,730
유럽	84,099	111,020	181,658	150,762	183,196
한국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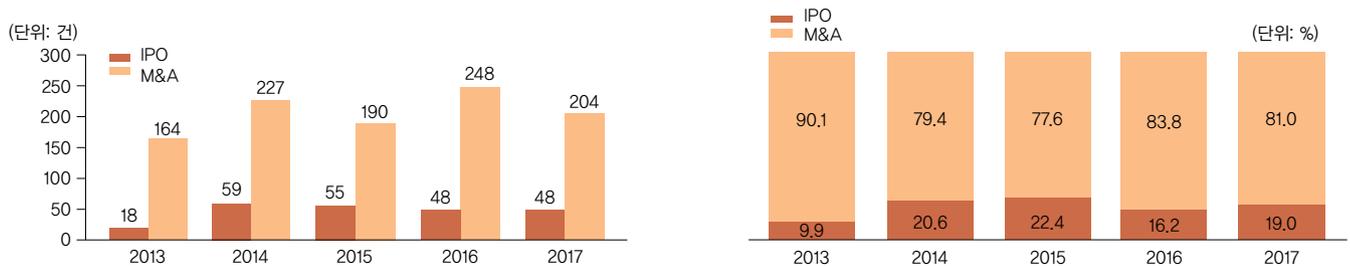
*환율은 2017년 12월 말 매매기준율 적용 (1달러=1,068.50원, 1유로=1,281.99원)

회수

- (중국) 2017년 4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111건 (73.0%)이 IPO, 41건 (27.0%)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017년 4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204건 (81.0%)이 M&A, 48건 (19.0%)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MARKET TREND

정부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 규모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차로 2.6조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재정에서 3천억 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천억 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과 투자 관련 계획 수립은 오는 3월 발족하는 혁신 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펀드별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운용사 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다른 펀드를 통한 후속 투자를 허용하는 등 장기유용 펀드 보수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

모태펀드

모태펀드는 4차 정시 출자사업의 조선업 구조개선 출자 분야(중진계정)에 나우아이비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캐피탈원 등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 600억을 결성하고 모태펀드는 총 3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모태펀드는 추경 출자 사업을 통해 올 1월 초까지 약 1조 6,753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2017년 추경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 추경예산을 포함한 8,6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1조 4,450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 바 있으며, 결성한 펀드들은 민간자금 매칭 증가로 조성목표보다 2,300억 원 큰 규모에 결성된 것이다. 향후 결성예정인 펀드를 포함하면 목표 대비 3,700억 원 이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된 펀드가 향후 4~5년 동안 투자되면 벤처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6,6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며, 청년 창업기업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계정별 추경 출자 사업 결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 결성현황

(단위: 억 원, 개사)

구분	선정('17.10.11.)		결성완료('18.1.9.)		결성예정('18.1분기)		계('18.1분기)	
	VC수	조성목표	VC수	조성금액	VC수	조성목표	VC수	조성목표
청년창업	21	5,520	17	4,838	4	1,200	21	6,038
4차 산업혁명	12	5,285	12	8,430	-	-	12	8,430
재기지원	11	3,125	10	2,955	1	200	11	3,155
지방	3	340	3	350	-	-	3	350
지재권	1	180	1	180	-	-	1	180
계	48	14,450	43	16,753	5	1,400	48	18,15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19년 해양수산 통합펀드 조성을 목표로 해양산업 투자펀드를 개설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통합운용 모태펀드를 조성해 현재 200억 원인 펀드 결성 규모를 2022년까지 2,000억, 2030년까지 5,000억 원으로 각

각 늘릴 계획이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정부 출자비율을 60~70% 이상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펀드가 지원하는 신산업의 범위는 해양에너지, 바이오, 자원, 첨단 해양 장비 개발과 첨단수산양식·가공 분야 등으로 나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산업육성 제3호 펀드' 270억 원을 조성한다. 제3호 펀드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5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소액투자를 약정총액의 15% 이상 하도록 하고,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15%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투자대상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690억 원의 관광산업육성 펀드를 결성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00억 원의 펀드를 연차별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자연스럽게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국내 주요 출자자 중 처음으로 사회투자펀드(임팩트투자 부문) 출자사업에 나선 가운데 인사이트에쿼티파트너스, 크레비스파트너스·라임자산운용(공동), 더웰스인베스트먼트·엠와이소셜컴퍼니(공동), 이베스트투자증권·킹슬리벤처스(공동), 피에스이피 등 총 5곳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팩트투자 펀드는 사회·환경·보건·빈곤·기근 등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조성금액의 60% 이상이 출자되는 펀드다. 성장금융의 출자분(130억 원)을 더해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펀드 존속기간은 10년(투자 기간 4년)이다. 성장금융은 2월 중 최종 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문화콘텐츠산업에 3년간(2017~2019년) 매년 4,000억 원씩 총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2년 문화콘텐츠 전담부서를 구성한 후 영화, 드라마, 공연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왔으며 2017년 투자 규모는 4404억 원가량이다. 기업은행은 유망 콘텐츠 기업에도 계속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시중 은행들도 영화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은행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농업보험정책금융원

2011년부터 운용해온 농식품 모태펀드가 올해 첫 청산 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아주IB투자와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등은 이미 해산신청을 마쳤다. 아주IB투자는 2011년 농식품 투자조합의 첫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펀드 규모는 약 200억 원이다. 아주IB투자는 투자 기간이 끝난 이듬해인 2015년 이미 2배 이상 자금을 회수했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도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해산을 신청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자펀드는 현재 약 9,525억 원까지 몸집이 불어났다. 지난해 10월까지 투자 소진율이 약 56%(5,321억 원)에 그쳤으나 최근 투자처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는 업력 3년 이상의 동남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투자전용 펀드인 '케이브릿지 2호 동남권 일자리 창출 투자조합'을 결성한다. 이 펀드는 정부자금인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60억 원, 부산시 15억 원, 운용사와 지역 중견기업 25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출자해 조성한다. 동남권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부품 소재, 바이오, 헬스케어, IT산업 등 분야의 업력 3년 이상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월부터 향후 8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